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노 지 석

#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 Attach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identity.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노 지 석

#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노   지   석

## 노지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II. 이론적 배경 .....	8
1. 진로준비행동 .....	8
1) 진로준비행동의 정의 및 특징 .....	8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
2. 부모 애착 .....	10
1) 부모 애착의 정의 및 특징 .....	10
2) 부모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
3)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11
3. 심리적 독립 .....	13
1) 심리적 독립의 정의 및 특징 .....	13
2) 심리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
3)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15
4)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	16

4. 자아 정체감 .....	18
1) 자아 정체감의 정의 및 특징 .....	18
2)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
3) 자아 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19
4) 부모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	20
5)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	21
5. 부모 애착, 진로준비행동,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의 관계 .....	23
Ⅲ. 연구 방법 .....	26
1. 연구 대상 .....	26
2. 연구 도구 .....	27
1) 부모 애착 척도 .....	27
2) 진로준비행동 척도 .....	28
3) 심리적 독립 척도 .....	28
4) 자아정체감 척도 .....	29
3. 분석 방법 .....	30
Ⅳ. 연구 결과 .....	31
1. 신뢰도 분석 .....	31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분석 .....	32
3.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	34
4.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	37
V. 논의 및 제언 .....	40
참고 문헌 .....	45
부록 .....	57
감사의 글 .....	67

##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6
표 2. 부모 애착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7
표 3. 진로준비행동의 문항구성 및 신뢰 .....	28
표 4. 심리적 독립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9
표 5. 자아정체감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9
표 6. 신뢰도 분석 .....	31
표 7.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33
표 8.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분석 .....	34
표 9. 상관분석(전체) .....	36
표 10.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직접효과 검증 .....	38
표 11. 부트스트랩을 통한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	39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7
그림 2.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모형 .....	37

## ABSTRACT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 Attach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identity.

JI SEOK ROH

Advisor : Prof. Kim Tack Ho, Ed.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identity on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307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City. The questionnaire includes measures of parental attach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elf-ident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 and Process Macro 4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result: First, parental attach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ident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psychological separ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self-ident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urth,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identity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 parental attach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sychological separation, self-ident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은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여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발달과업의 성취는 성인기의 생활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졸업 이후 직업과 장래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lustein, 1989).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시간을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을 하기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시간을 보내며, 그로 인해 진로 탐색 및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진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학진학 후 진로선택과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민정, 2009). 이를 증명하듯 대학 내 상담기관을 내방하는 학생들의 상담내용 중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조성연, 2010),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졸업을 유예하거나 그만두는 등의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권용준, 2018; 문승태, 2002). 나아가 진로발달이 정체된 채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이후 잘못된 진로선택을 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실패 등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김진숙, 2017).

실제로 2021년 3월 조사된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20세~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10.0%로 총 40만 4천명이 실업자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21). 체감 실업률은 26.8%로 통계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미취업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의 무게가 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더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유희영, 오윤정, 2019).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대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고, 기능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최인선, 주은지, 2016).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후 결정사항 실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뜻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또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에 진출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오은주, 2014). 진로준비행동은 빨리 시작할수록 취업 확률이 높으며, 준비 행동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직장 내 만족도가 높아진다(이승구, 이제경, 2008). 반대로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취업실패 가능성이 높아져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민혜리, 2003).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정도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적 조건이나 외적 환경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Blustein, 1989).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내적 변인, 특성 변인, 환경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내적 특성 변인으로는 자아 정체감, 심리적 독립, 진로 적성 및 성숙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 스트레스 대처방식, 긍정심리자본,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등의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황 및 환경적 변인으로는 경제 상황, 부모 애착, 부모지지, 진로장벽, 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교육 서비스 품질 등의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중현, 2019).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부모 애착은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와 그 안에서의 경험을 의미하며, 부모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한다(Bowlby, 1969). 부모 애착은 청소년기나 성인기 동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전 생애적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 친밀감을 통해 자녀의 인지발달, 자아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Ainsworth, 1989).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진로에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하며, 낮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때 지지적인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Kenny & Rice, 1995).

아동기부터 형성된 애착은 청년기까지 이어져 학교와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 그리고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Kenny & Donaldson, 1991), 이때 부모로부터 제공된 안정감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과 숙달을 촉진시켜(Ainsworth, 1989; Bowlby, 1988) 성공적인 진로발달에 필수적인 자신과 일에 대한 탐색을 증진시킴으로써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방아영, 2009; 최옥현, 2007).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안정된 애착관계가 진로발달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lusein, Prezioso, Schultheiss, 1995; Rainey & Borders, 1997),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인 진로탐색행동의 변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현주, 2001)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생애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애착이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심리적 독립은 후기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의 지지를 포함한 긍정적 분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문정희, 2020).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고, 지식 집약적인 구조를 가진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시기가 지연되어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되고(Arnett, 2007;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이와 동시에 대학생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체감을 획득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Blos, 1967).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 불신,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감정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박정애, 진미경, 2015), 정서, 행동, 태도 측면에서 자기 신뢰를 형성하고 자율성을 성장시킨다(권재환, 이성주, 2013; Kenny & Donaldson, 1991). 이는 성인으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발달과업을 점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높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미결정 점수가 더 높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박완성, 2002; Scott & Church, 2001),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를 준비하고 적응적인 진로 발달의 과업을 가진 대학생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과 적극적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정된 심리적 독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김봉환(1997)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으로 정체감을 제시하며 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Super(1953)는 인간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발달과 계획에 자아개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진로발달이론에서 자아정체감 확립이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변인이자 목표라고 강조하였다(Tiedman, O'hara, 1963).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 내면의 통찰을 통해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며, 개인의 흥미, 재능, 목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의미한다. 자아 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 독립심, 심리적 안정, 관계적 유연성이 높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Adams & Shea, 1979)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일관성 있게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을 통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뚜렷하게 하여 진로에 대한 준비를 증진시키게 한다(김은석, 유성경, 2013).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김희진, 2001),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조명실, 최경숙, 2007).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결정력이 높아지며 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을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 변인으로 보았으며(Allison, Sabatelli, 1988), 이러한 애착은 유아기 때부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문승태, 김연희, 2003)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되어 유아기, 청소년기가 지나더라도 애착이 지속된다고 보았다(Kenny, 1987). 이처럼 유아기 이후부터 형성의 기반을 잡기 시작하는 자아정체감은 가정환경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동일시 및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점차 형성된다(이화림, 2001). 특히 가정환경은 최초의 사회화 장소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박아청, 2008).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이 자아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감을 획득할 경우 자아정체감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으며(김은진, 천성문, 2001),

청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감은 긍정적인 발달현상인 것으로 보았다(한세영, 김연화, 2007).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정봉희, 배영문, 이영순, 2008),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재현, 1993). 따라서 심리적 독립이 자아 정체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결정된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즉,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학생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 자아 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을 위해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의 바른 인식을 위한 부모교육에 보충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개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매개 분석법인 The PROCESS macro Model 중 Model 6를 활용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두 개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고, 개별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 볼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부모 애착, 진로준비행동,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부모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4. 심리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5.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6. 자아 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심리적 독립은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가설 2. 심리적 독립은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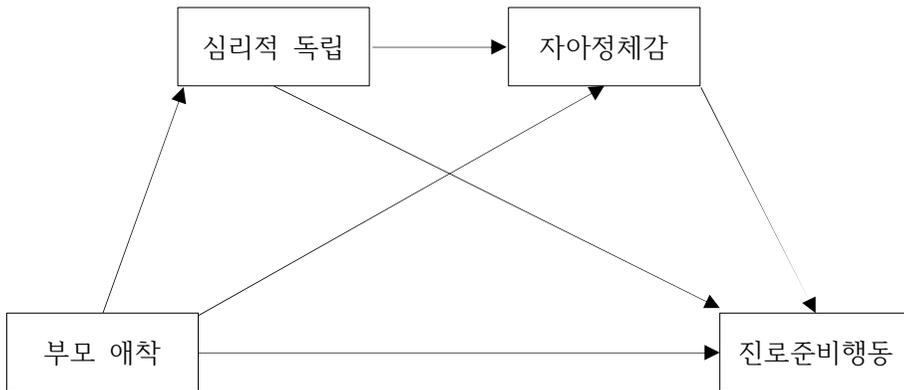
연구문제 3. 자아정체감은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가설 3. 자아 정체감은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4.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4.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은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준비 행동

#### 1) 진로준비 행동의 정의 및 특징

김봉환(1997)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진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고, 진로 결정 수준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에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진로 목표의 달성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동,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박윤아, 2011).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행동적 측면’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김봉환, 1997).

첫 번째 ‘정보수집 활동’은 자신의 성격, 적성, 능력, 흥미 등 자신에 대한 정보와 필수 요구 역량, 직업 현황, 직업 전망, 입직 방법, 작업 환경, 승진경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두 번째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는 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면허증,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과 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나 장비 등을 마련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은 준비한 자료와 도구를 바탕으로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구비한 자료와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변인, 진로 변인, 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 변인으로 학년이 진로준비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손은령, 손진희, 2005),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독립 중 정서적, 기능적, 태도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양진희, 2007).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신종임, 현채송, 2008). 이 밖에도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자기 격려(김지연, 이주연, 이기학, 2014; 강정곤, 2011), 자기개념,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부모애착 변인, 진로결정 자율성(박유리, 안세영, 최보영, 2017) 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진로 변인 중에는 진로성숙, 진로 정체감, 진로 태도성숙, 진로결정수준(김봉환, 1997; 김봉환, 김계현, 1997; 송영선, 송현정, 2015; 이정민, 조보람, 2015; 양진희, 2007)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진로 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과 결정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송영선, 송현정, 2015). 환경변인 중에는 부모지지 및 사회적 지지, 경제상황 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김종운, 김현희, 2016; 위선희, 2013).

위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김봉환(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발달에서의 행동적 측면을 중점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최윤경, 김성희, 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행동적 요소를 더 세분화하여 연구하여 진로상담이나 교육 등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부모 애착

### 1) 부모 애착의 정의 및 특징

부모애착이란 아동기에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와 그 안에서의 경험을 의미하며, 생후 1년간은 대부분 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이후 아빠와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아동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태은, 전금주, 김선아, 김보성, 고미나, 2018; Bowlby, 1988).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인지발달(학업기대, 학습몰입, 성취목표지향성, 인지적 유형성), 자아발달(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정서발달(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사회성 발달(친사회적 행동, 친구 관계망, 또래애착, 교사애착,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정은미, 2018).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은 청소년기나 성인기 동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Ainsworth, 1989),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를 통해 인간 발달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즉, 부모애착은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탐색 활동을 촉진시키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도 포함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성을 말한다(박수길, 이영희, 2001).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되어(Cassidy, 1994)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에 두려움을 잘 가지지 않으며, 타인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타인과 갈등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한다(김영근, 최보금, 박경선, 2018).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관계에서 정서적인 유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도전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의존적인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났다(권희선, 한기백, 2019). 이 외에도 자기개념, 자기 존중감, 인생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우울이나 불안, 분노, 소외 또는 죄책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Armsden & Greenberg, 1987).

## 2) 부모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 애착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모 애착이 대학생의 개인적 적응, 심리적 안녕, 학업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정체감 발달, 대처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행동, 비행 및 외현화 행동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enny & Donaldson, 1991; Kenny & Perez, 1996; Patterson, Pryor, & Field, 1995; Rice & Cummins, 1996, 박수길, 이영희, 2002).

또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은경, 2001; 임수진, 2004; Ryan, Solberg, & Brown, 1996)과 진로태도성숙(이내은, 2002; 이희영, 1999), 진로준비행동(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수준이 높았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고(최현영, 서영석, 2005)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 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연구에서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 개념의 혼란은 낮았다(Armsden, Greenberg, 1987).

## 3)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부모 애착은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기존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새로운 환경은 친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접해본 경험이 없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곳을 뜻한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경험은 진로발달을 발달시키는 새로운 환경과 내적인 심리적 영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안정된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 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이내은, 2002). Bowlby(1969)의 애착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성장면서 계속 발전되며,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애착 형성과 발달은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고, 자녀와 양육자의 안정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유아기 이후 성장하는 동안에 양육자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주위를 탐색

할 수 있게 된다. 애착관계의 발달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제공된 안정감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능동적 탐색과 숙달감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도출된 안정감이 성공적인 진로발달에 필수적인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탐색을 증진시킴으로써 애착은 진로준비행동, 직업 수행, 진로미결정에 대한 대처 등과 같은 진로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옥현, 김봉환 2007; Bluestein, 1995).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와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이후 자녀의 진로발달 촉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Blusein, Prezioso, Schultheiss, 1995; Rainey & Borders, 1997),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박완성, 2007),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인 진로탐색행동의 변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현주, 2001),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이처럼 개인의 진로 발달과 진로 상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인간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애착(임수진, 2004)이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평생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깊이 이해 할 수 있고,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자녀의 기능적인 진로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심리적 독립

#### 1) 심리적 독립의 정의 및 특징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청소년기와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과 부모 역할(Shanagan, 2000) 등을 수행해야 하는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있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된다(Arnett, 2007).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취업 준비의 기간을 연장시키게 되고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 또한 늦춰지게 한다(강주현, 2016). 이처럼 사회가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바뀌어가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인기로의 전환하게 되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지연되어 있는 상태에 당면해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 후에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의존하며 대학생 시기를 자신에게 집중하며,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이와 동시에 대학생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체감을 획득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부모와의 유아적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Blos, 1967). 대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의식, 불신,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생겨나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박정애, 진미경, 2015), 행동, 정서, 태도 측면에서 점점 자율적으로 되어간다(권재환, 이성주, 2013; Kenny & Donaldson, 1991). 이처럼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의존적인 습성으로 인해 독립을 성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정은희, 1992). 청년기의 분리란 애착이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애착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전한 독립은 부모와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오히려 가능하며(백지숙, 1998) 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을 통한 최적의 자율성 획득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거리감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면서도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은희, 1992). 또한 Blos(1967)는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 없이 자신을 발달시키고 독립할 수 있어야 심리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으며, 성인 초기 시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개인과 부모의 연결이 유지된 상태로 부모와 분리되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즉, 심리적 독립이 부모로부터 단순히 분리되거나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정도가 아니며 자율적이고 자기 확신적이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이를 통해 자율감을 느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김영린, 201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리적 독립은 외국에서 개발된 심리적 독립과는 구별되는 데,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얼마나 개별화 되었는가에 대한 분리의 정도를 지표로 삼는 심리적 독립과 달리 관계주의 특성을 가진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며(현정환, 2007)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독립은 관계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서의 심리적 독립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Tang, 199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서구사회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의 전통을 갖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인간관계는 개인의 존재와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박영신, 김의철, 2002; 박수영, 2005),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능력임을 강조하는 연구결과(장휘숙, 2002)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심리적 독립은 밀착적인 가족관계의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 위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이진하, 최연식, 2007). 이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서 분리되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부모 자녀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심리적 독립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건강한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상호 의존하는 태도를 형성하며(강주현, 2016), 부모와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와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정은영, 2008), 무엇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애착을 형성해야 성숙한 독립도 가능하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이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장휘숙, 2002). 이처럼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연결되어 지지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심리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offman(1984)은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지지, 격려,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청년기 자녀에게 부모가 의지하지 않을수록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개별화 및 개인의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독립성, 심리적 거리가 건강한 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Blos, 1979; Hoffman & Weiss 1987). 심리적 독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박완성, 2003; 주은지, 2018), 진로결정수준(김은진, 천성문, 2001; 박찬주, 1992; Kinner, Brigman & Noble, 199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양은희, 2017), 자아 정체감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고(주은지, 2018),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에 확고하고, 진로계획에 적극적임을 보고하였다(정봉희, 2008). 이 외에도 청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Hoffman, 1974; Hoffman & Weiss, 1987; Thornburg, 1982), 성차(정은희, 1992; 한혜준, 1994; Mattanah et al., 2004) 등 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독립에 대해 인정, 지지, 수용, 격려하는 태도를 지닐수록,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욕구충족을 위해 청년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수록(Hoffman. J.A. & Weiss, B., 1987) 자녀들은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3)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학생 시기는 성숙한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 책임, 가치관 확립 등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성숙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 행동에 영향을 주며(주은지, 2018)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이 제시되고 있다(Blustein, 1991).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며,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기 신뢰, 부모와 지지관계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정은, 2008; 양진희, 김봉환, 2008; 이주연, 2019; 임수진, 2015; 임통일,

2013). 이는 자아 정체감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양진희, 김봉환, 2008; 박현주, 김봉환, 2006)와 일치하고, 부모의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이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수리, 2005; 위선희, 2013)와 일치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며(안선영, 김희진, 2011).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부모와의 지지관계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독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적절한 거리감과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고 한다.

#### 4)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청소년기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부모 애착의 중심 기능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김수진, 2009; Belsky, 2002)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모를 애착인물로 활용하려고 하므로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Holmes, 1993; Laghi et al., 2009; Laible, 2004).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분리 후에 부모와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탐색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Armsden, Greenberg, 1987),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대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탐색을 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Liable, Carlo & Raffaelli,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심지연, 2013). 또한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심리적 독립은 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윤승경, 1989; 장휘숙, 2002;

정은희, 1992),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러한 2차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문제가 생겨,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허윤희,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되지 않고 보다 나은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통한 안정감을 제공받았을 때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4. 자아 정체감

### 1) 자아 정체감의 정의 및 특징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에릭슨(Erikson)은 대학생 시기가 포함된 청소년 및 청년기가 자아 정체감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개인의 행동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박남숙, 2005). 에릭슨은 여덟 단계로 성격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고, 각 단계별로 발달의 특징을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로 기술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이 여덟 개의 단계 중에서 다섯 번째인 청년기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써, 에릭슨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에릭슨은 청년기에 자아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의 발달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자아정체감이 바르게 확립된 개인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기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적절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면서 주체성을 갖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박아청, 2004). 청년기에 포함되는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정체감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안정감 혹은 내적 일치감에 수용을 완성하는 과업을 지닌 시기이며, 자아정체감 확립은 대학생 시기의 결정적인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환경은 대학생의 정체감 문제를 숙고하여 대안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김미주, 2010).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 이라고 요약하고 있다(박아청, 1996).

Super(1963)는 정체감 발달이 진로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언급하였고, 정체감 가운데 진로와 관련된 정체감. 즉, 알맞은 진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일관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자기개념. 즉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필요하고 주장하였다. 자아 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김은정, 2015).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은 입시,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청년기가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부족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상담에서 자아 정체감 수준의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대학생의 진로교육과 상담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 2)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능력, 혼돈감, 직업적 태도, 삶의 목표 등의 관련 변인이 있고, 가족 변인으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이미애, 최명숙, 최성열, 2007). 그 외 부모에 대한 동일시(서봉연, 1975), 친애적인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자율적 태도, 성취주의(이차선, 2000),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과 권력자로서의 부모 역할(김희영, 1986), 가족 유형, 지각된 부모의 수용과 거부(송설희, 1994), 부모-자녀 간 의견일치 여부(전영실, 1987), 성별, 종교유무, 가족형태, 부의 교육수준(김영자, 2004)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교사와 상호작용,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우 관계, 학업 성취도(이차선, 2000) 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웅택 2017; 정은균, 2008; 조은주, 2001;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 2003; Savickas, 1985)들을 살펴보면, 자아 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 진로 불안, 진로 결정 등 진로발달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자아 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은 성격발달과정과 직업생활의 위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론은 진로 결정에 대한 여러 가설과 사실들을 설명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Holland, 1977). 특히 직업 선택 및 진로발달의 목표를 일에 관한 자아정체감의 형성, 발달로 보았다(Tideman,

O'Hara,1963). 직업적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분명하지 않은 환경적 입장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확신을 주고 비교적 만족한 의사결정으로 이끌어 주는데 기여한다(Holland, Diger, Power, 1980).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은 정체감의 표현이며, 역할과 책임에 깊이 관련되고, 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통해 탐색 및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진로 발달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발달에 있어 더 확신적이고 결정상태가 높아져(Fuquaetal, 1988),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김은석, 유성경, 2013).

진로준비행동을 최초로 연구하고 개발한 김봉환(1997)은 자신의 성격, 흥미, 재능, 목표, 등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는데,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자기개념 또는 높은 수준의 정체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er, 1953). 즉, 진로준비행동의 주요 변인인 진로정체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이 선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김희진, 1997),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 행동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이정희, 1999), 높은 자아정체감이 진로 목표를 뚜렷하게 하여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김은석, 유성경, 2013)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 부모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모는 자녀의 출생부터 성숙에 이르는 발달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차선, 2000). 이차선 유아기 이후부터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아정체감은 가정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동일시하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사회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통합을 이루게 된다(문채욱, 2012). 애착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애착관계의 질이 개인의 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할수록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이재경, 2011). 부모 자녀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자신의 갈등에 대하여 부모를 안전기지 삼아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두려움 없이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자유로운 탐색 활동을 한다.

자아 정체감과 부모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환경과 애착 및 자아 정체감과 연구에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청소년인 경우 애착유형이 훨씬 안정적이며 자아정체감의 성취수준이 높다는 결과(박순이, 박영호,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이태영, 1994), 애착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이 두려움 형 애착유형의 사람보다 총체적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황경옥, 2001). 부모와의 친밀이 높을수록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은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장연주, 2007). 따라서 부모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5)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Erikson(1968)은 자신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타인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며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기의 분리나 독립은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Campbell, Adams, & Dobson, 198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 전환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조한익, 원상희, 2011). 이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기 인식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범주 속에서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포함하여 부모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박아청, 이승국, 1999),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김은진, 강호조 2001; 이미애, 최명숙, 최성열, 201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정봉희, 배영문, 이영순, 2008). 부모로부터 독립감을 획득할 경우 자아정체감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으며(김은진, 천성문, 2001), 청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감은 긍정적인 발달현상인 것으로 보았다(한세영, 김연화, 2007).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이 자아 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각각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며, 다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에 선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대학생 시기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자 결정 이후 실행을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발달 과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졸업 이후 성인기의 직업과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Blustein, 1989).

진로준비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인 부모 애착은 진로탐색과 진로 선택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 애착은 부모와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경험을 의미하는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긍정적 자기상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Kenny & Rice, 1995), 제공 받은 안정감을 통해 능동적인 탐색과 숙달을 촉진시켜(Ainsworth, 1989; Bowlby, 1988) 자신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증진시키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에서는 적절한 진로탐색, 준비와 더불어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성숙한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심리적 독립을 통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율감과 자기 신뢰, 부모와의 지지관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주은지, 2018).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자기 신뢰, 부모와 지지관계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보다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강정은, 2008; 양진희, 김봉환, 2008; 임수진, 2015) 따라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관계에서 자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독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부모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김효정, 2009), 심리적 독립은 부모 애착관계를 통해 점차 성장하고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기 시작하며, 자율성과 개별성을 자각하여 발전시키게 된다고 보았다(심지연, 2013).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에는 부모와의 지지관계가 포함되는데, 이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지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심리적 독립 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Lopez, Gover, 1993), 심리적 독립에 대해 부모 애착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다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정은희, 1992). 따라서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자기개념 또는 높은 수준의 정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으며(Super, 1953), 자아 정체감을 통한 개인의 목표, 재능, 흥미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인식을 통해 분명하지 않은 진로적 입장에 직면 하였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김봉환, 1997). 실제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자아정체감이 진로 목표를 뚜렷하게 하여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김은석, 유성경, 2013)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김희진, 1997),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정희, 1997).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효율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신체적 변화와 사회 심리적인 갈등으로 발달하고 형성하며 유아기 이후부터 형성의 기반을 잡기 시작하여 가정환경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동일시 및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점차 넓게 확산해간다(이화림, 2001). 특히 가정환경은 최초의 사회화 장소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박아청, 2008). 자아정체감은 애착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고 이러한 애착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문승태, 김연희, 2003), 안정된 애착을 통해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전 생애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된다(채진선, 2007). 따라서 부모 애착이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체감 확립에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으며,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독립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이 자아 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고(배재현, 1993 ; 이미애, 2011),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부모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이승국, 1999).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심리적 독립이 선행되어 형성되어야 하며, 심리적 독립이 자아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매개 되었을 때, 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라남도 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대학교를 무선선정하여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웹 설문지를 통해 URL공유 방식으로 배포하였으며, 응답 후 바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일 ~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표집을 통해 총 313명을 확보 하였으며, 설문과정 중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6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307명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7)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85	27.7
	여성	222	72.3
학년	1학년	95	30.9
	2학년	84	27.4
	3학년	56	18.2
	4학년	53	17.3
	5학년 이상	19	6.2
전체		307	100.0

## 2. 연구 도구

### 1) 부모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애착 척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PPA-R(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R)중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신뢰감 (20문항), 의사소통 (18문항), 소외감(12문항)로 부모 애착, 또래 애착 각 25문항을 합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부모와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의미하고, 신뢰감은 부모에 반응에 안정성을 뜻하며, 소외감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와 분노를 뜻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93, 또래 애착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신뢰도가 .92, 의사소통 .91, 소외감이 .86로 높은 수준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6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부모 애착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신뢰도
부애착	신뢰감	1, 2, 3 <sup>^</sup> , 4, 9 <sup>^</sup> , 12, 13, 20, 21, 22	20	.911
	의사소통	5, 6 <sup>^</sup> , 7, 14 <sup>^</sup> , 15, 16, 19, 24, 25	18	.894
	소외감	8 <sup>^</sup> , 10 <sup>^</sup> , 11 <sup>^</sup> , 17 <sup>^</sup> , 18 <sup>^</sup> , 23 <sup>^</sup>	12	.829
	전 체		25	.951
모애착	신뢰감	26, 27, 28 <sup>^</sup> , 29, 34 <sup>^</sup> , 37, 38, 45, 46, 47	10	.922
	의사소통	30, 31 <sup>^</sup> , 32, 39 <sup>^</sup> , 40, 41, 44, 49, 50	9	.876
	소외감	33 <sup>^</sup> , 35 <sup>^</sup> , 36 <sup>^</sup> , 42 <sup>^</sup> , 43 <sup>^</sup> , 48	6	.815
	전 체		25	.950
전 체			50	.964

## 2) 진로준비 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에서 이명숙(2003)이 인터넷 진로정보사이트가 다수 생겨나고 학생상담센터 등의 진로상담센터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김봉환(1997)의 척도에 2문항(8번, 12번)을 추가 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6문항), 도구구비활동(5문항), 실천적 노력(7문항)으로 총 18문항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9로 낮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준비행동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정보수집활동	1, 2, 3, 8, 9, 17	6	.724
도구구비활동	4, 5, 13, 14, 15	5	.795
실천적 노력	6, 7, 10, 11, 12, 16, 18	7	.839
전 체		18	.902

## 3) 심리적 독립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독립 척도는 문정희(2020)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측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offman(1984), Moore(1987), Baik(1997)의 척도를 기반으로 신석기, 최태진, 박성미, 이은영, 김유미(2011)의 절차를 근거로 척도 개발한 척도이다. 하위요인은 자기신뢰(6문항), 자율적 의사결정(6문항), 부모와 지지관계(6문항)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4이며, 각 하위요인의 문항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심리적 독립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자기신뢰	1, 2, 3, 4, 5, 6	6	.885
자율적 의사결정	7 <sup>^</sup> , 8 <sup>^</sup> , 9 <sup>^</sup> , 10 <sup>^</sup> , 11 <sup>^</sup> , 12 <sup>^</sup>	6	.799
부모와 지지관계	13, 14, 15, 16, 17, 18	6	.866
<b>전 체</b>		18	.840

#### 4) 자아 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질문지를 조명실(200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주체성(4문항), 자기 수용성(4문항), 미래 확신성(5문항)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 변인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1이며, 각의 하위요인의 문항 및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아정체감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주체성	1, 5, 7, 11	4	.834
자기수용성	2 <sup>^</sup> , 6 <sup>^</sup> , 10 <sup>^</sup> , 12 <sup>^</sup>	4	.860
미래확신성	3 <sup>^</sup> , 4, 8 <sup>^</sup> , 9 <sup>^</sup> , 13	5	.908
<b>전 체</b>			.902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6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18)의 The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기술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애착,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매개 분석법인 The PROCESS macro Model 중 Model 6를 활용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두 개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고, 개별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에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Hair et al., 1998),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 수	Cronbach's $\alpha$	
부모애착	부애착	신뢰감	.911	
		의사소통	.894	
		소외감	.829	
	전체		25	.951
	모애착	신뢰감	10	.922
		의사소통	9	.876
		소외감	6	.815
		전체	25	.950
	전체		50	.964
	심리적 독립	자기신뢰	6	.885
자율적 의사결정		6	.799	
부모와 지지관계		6	.866	
전체		18	.840	
자아 정체감	주체성	4	.834	
	자기수용성	4	.860	
	미래확신성	5	.908	
	전체	13	.913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6	.724	
	도구구비활동	5	.795	
	실천적 노력	7	.839	
	전체	18	.902	

##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분석

주요 변인인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인들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들의 정상성을 가정하기 위해 확인했을 때, 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인 하위요인의 왜도가  $\pm 2$ 를, 첨도가  $\pm 7$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8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부애착 전체 3.67, 신뢰감 3.89, 의사소통 3.30, 소외감 3.87, 모애착 전체 3.96, 신뢰감 4.11, 의사소통 3.76, 소외감 4.02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8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자기신뢰 3.79, 자율적 의사결정 3.73, 부모와 지지관계 3.99로 나타났다. 자아 정체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0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주체성 3.15, 자기수용성 3.27, 미래확신성 2.80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정보수집활동 3.61, 도구구비활동 3.32, 실천적 노력 2.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의 진로준비행동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심리적 독립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7>과 같다.

< 표 7 >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307)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애착	부애착	신뢰감	1.10	5.00	3.89	0.72	-0.66	0.26
		의사소통	1.00	5.00	3.30	0.81	-0.23	-0.04
		소외감	1.17	5.00	3.87	0.77	-0.65	-0.01
	전체		1.08	5.00	3.67	0.70	-0.50	0.09
	모애착	신뢰감	1.00	5.00	4.11	0.71	-1.21	2.32
		의사소통	1.00	5.00	3.76	0.75	-0.54	0.07
		소외감	1.00	5.00	4.02	0.74	-0.92	0.80
		전체		1.16	5.00	3.96	0.68	-0.92
	전체		1.68	5.00	3.82	0.62	-0.42	0.14
	심리적 독립	자기신뢰	1.33	5.00	3.79	0.80	-0.28	-0.41
자율적 의사결정		1.00	5.00	3.73	0.78	-0.38	-0.25	
부모와 지지관계		1.67	5.00	3.99	0.67	-0.51	0.24	
전체		2.56	5.00	3.84	0.52	0.01	-0.44	
자아 정체감	주체성	1.75	4.00	3.15	0.53	-0.21	-0.34	
	자기수용성	1.00	4.00	3.27	0.65	-0.79	0.37	
	미래확신성	1.00	4.00	2.80	0.74	-0.30	-0.55	
	전체		1.54	4.00	3.05	0.54	-0.20	-0.5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1.00	5.00	3.61	0.72	-0.14	0.08	
	도구구비활동	1.00	5.00	3.32	0.93	-0.06	-0.64	
	실천적 노력	1.00	5.00	2.78	0.95	0.30	-0.46	
	전체		1.28	5.00	3.21	0.76	0.20	-0.23

### 3.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분석 (N=307)

	부모애착	부애착	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 정체감	진로준비행동
부모애착	1					
부애착	.897***	1				
모애착	.887***	.590***	1			
심리적 독립	.507***	.447***	.458***	1		
자아 정체감	.442***	.416***	.372***	.701***	1	
진로준비행동	.270***	.257***	.224***	.464***	.509***	1

\* p<.05 \*\* p<.01 \*\*\* p<.001

상관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애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270, p<.001$ ), 부애착( $r=.257, p<.001$ ), 모애착( $r=.224, p<.0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심리적 독립( $r=.464, p<.001$ ), 자아 정체감( $r=.509, p<.0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 1-1, 1-4, 1-6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아 정체감은 부모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442, p<.001$ ), 부애착( $r=.416, p<.001$ ), 모애착( $r=.372, p<.0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 정체감은 심리적 독립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701,$

$p < .001$ ). 이는 부모 애착이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수준이 높아지고,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 때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 1-3, 1-5가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은 부모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507, p < .001$ ), 부애착( $r = .447, p < .001$ ), 모애착( $r = .458, p < .0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 1-2가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과 하위요인의 전체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상관분석(전체)

	부모 애착	부모 부애착	신뢰감	의사 소통	의사 소외감	부모애착	신뢰감	의사 소통	의사 소외감	심리적 독립	자기신 독립	피 의사결정	부모와 자녀 정체감	주체성	자기수 용성	미래학 진로준 비행동	도구구 집합등 비활동	노력			
부모애착	1																				
부애착	.897***	1																			
신뢰감	.841***	.942***	1																		
의사소통	.827***	.927***	.793***	1																	
소외감	.795***	.874***	.773***	.710***	1																
모애착	.887***	.590***	.550***	.539***	.538***	1															
신뢰감	.827***	.540***	.539***	.467***	.475***	.943***	1														
의사소통	.826***	.550***	.478***	.566***	.453***	.931***	.808***	1													
소외감	.783***	.538***	.494***	.437***	.590***	.864***	.746***	.713***	1												
심리적 독립	.507***	.447***	.437***	.381***	.417***	.458***	.450***	.417***	.383***	1											
자기신뢰	.338***	.308***	.265***	.330***	.237***	.296***	.277***	.304***	.213***	.768***	1										
자율적 의사결정	.015	.015	.059	-.091	.109	.012	.017	-.038	.076	.614***	.151***	1									
부모와 지지관계	.753***	.649***	.627***	.595***	.554***	.695***	.690***	.647***	.544***	.683***	.414***	.075	1								
자아 정체감	.442***	.416***	.364***	.404***	.380***	.372***	.316***	.351***	.370***	.701***	.790***	.222***	.423***	1							
주체성	.407***	.374***	.328***	.359***	.345***	.352***	.325***	.331***	.311***	.597***	.672***	.114	.450***	.791***	1						
자기수용성	.476	.406	.384	.350	.395	.443	.394	.389	.458	.564	.517	.223	.423	.809	.541	1					
미래학신성	.276	.294	.236	.318	.249	.195	.138	.207	.205	.598	.758	.202	.247	.885	.554	.529	1				
진로준비행동	.270	.257	.180	.331	.174	.224	.162	.278	.165	.464	.586	.038	.333	.509	.466	.293	.498	1			
정보수집활동	.323	.294	.224	.336	.238	.282	.224	.317	.228	.456	.502	.056	.383	.443	.421	.284	.403	.838	1		
도구구비활동	.194	.188	.144	.235	.120	.156	.118	.205	.092	.443	.521	.136	.246	.448	.413	.261	.435	.857	.625	1	
심리적 노력	.210	.206	.124	.296	.120	.168	.106	.224	.126	.349	.514	-.053	.258	.447	.397	.236	.458	.913	.639	.659	1

\* p<.05 \*\* p<.01 \*\*\* p<.001

#### 4.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6번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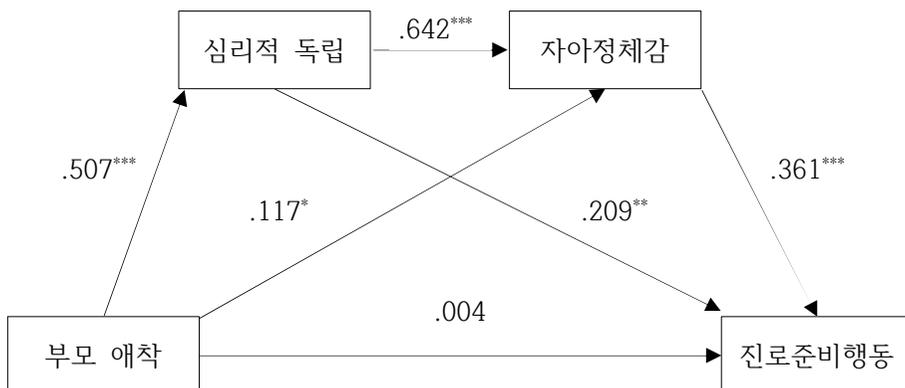
먼저 변수 간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부모 애착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270, p<.001$ ),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애착은 매개변수인 심리적 독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507, p<.001$ ), 심리적 독립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25.8%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beta=.117, p<.05$ )과 심리적 독립( $\beta=.642, p<.001$ )은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정체감에 대한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설명력은 50.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심리적 독립( $\beta=.209, p<.01$ )과 자아정체감( $\beta=.361, p<.001$ )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모애착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의 설명력은 28.2%로 나타났다. 자세한 검증 결과는 <표-10>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모형



<표 10>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직접효과 검증

Model	DV	IV	B	SE	$\beta$	t	p	F(R <sup>2</sup> )
1	진로준비행동	부모애착	0.333	.068	.270	4.893***	<.001	23.942*** (.073)
2	심리적 독립	부모애착	0.427	.042	.507	10.284***	<.001	105.759*** (.258)
3	자아 정체감	부모애착	0.103	.041	.117	2.485*	.014	152.832*** (.501)
		심리적 독립	0.669	.049	.642	13.651***	<.001	
4	진로준비행동	부모애착	0.005	.070	.004	0.072	.943	39.636*** (.282)
		심리적 독립	0.306	.105	.209	2.911**	.004	
		자아정체감	0.507	.097	.361	5.236***	<.00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 각각의 매개효과와 심리적 독립을 거친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11>에 따르면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034, 0.240]이고,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져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애착이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006, 0.112]이고,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져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애착이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086, 0.213]이고,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지고,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져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부트스트랩을 통한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Path	B	S.E.	95% CI	
			LLCI	ULCI
부모애착→심리적 독립→진로준비행동	0.131	.052	0.034	0.240
부모애착→자아정체감→진로준비행동	0.052	.027	0.006	0.112
부모애착→심리적 독립→자아정체감→진로준비행동	0.145	.032	0.086	0.213

## V.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간을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할애 하면서 진로 탐색 및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진로에 대한 혼란과 스트레스, 졸업 유예 및 포기, 취업실패로 이어져 성인기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이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로를 준비하는 실제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심리 내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심리내적 과정과 특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적 접근과 개입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광주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결과를 SPSS 25로 변인 간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0와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 따른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인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 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상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 애착은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진로준비행동과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높은 심리적 독립은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과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었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각 변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매개변수 간의 상관성과 방향성이 확인되어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 부모 애착이 자아정체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경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 부모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이 높고,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안정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탐색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에서 심리적 독립이 매개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들(윤승경, 1989; 정은희, 1992; 장휘숙, 2002; 심지연, 2013)에 의해 밝혀져 있다. 부모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독립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황에서 안정을 제공받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모를 애착인물로 활용함으로써, 부모와 분리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안정감 있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심리적 독립을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아정체감도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정체감은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동일시,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특히 가정환경은 최초의 사회화 장소로 자아정체감에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자아정체감은 진로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재능, 흥미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인식을 탐색하고 통찰하여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여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순서대로 순차적 매개효과를 지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안정감의 영향으로 심리적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진로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 기초가 되고,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여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과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경우

심리적 독립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잘 형성된 부모 애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공되는 안식처의 역할과 안정감을 제공할 경우, 대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탐색을 보다 쉽게 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Liable, Carlo & Raffaelli, 2000), 부모 애착관계를 통해 점차 성장하고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기 시작하며, 자율성과 개별성을 자각하여 심리적 독립을 발전시킨다는(심지연, 2013)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경우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므로, 이는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승국, 1999),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아정체감도 높다(배재현, 1993; 이미애, 2011)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정희, 1999; 김은석, 유성경, 2013)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에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모 애착은 높은 심리적 독립, 높은 자아정체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적극적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별 변인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부모 애착을 통해 영향을 받은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 행동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부모 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하는 많은 변인을 연구되었으나(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유훈, 김계현, 2015; 이유진, 전주성, 2020; 임수진, 2015; 진현정, 2011.),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이 어떤 경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의미가 있다. 또한 심리적 독립이 어떻게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 생애적 영역에서 유지되고 발달하는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경로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인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독립이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졸업 후 실제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로 행동적 영역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 영역은 인지적, 정서적 교육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에 대해 탐색과 고려가 필요한 상태에서(최주영, 김경희, 2020)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연구 대상인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업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적극적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의 향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강정은, 2008; 양진희, 김봉환, 2008; 임수진, 2015),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석, 유성경, 2013; 이정희, 1997)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부모 애착 관련 진로준비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신에 대한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고, 낮은 심리적 독립 수준으로 자아정체감이 낮음을 이해하고, 이 순차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독립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형성하여 자아정체감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제한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변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방어적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적 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면담 및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보완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심리내적인 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을 위해 행동 변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부모 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동기 및 주요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부모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의 결과가 진로준비행동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접근방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참고 문헌

- 강정근(2011).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 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 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주현(2016).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225-237.
- 권재환, 이성주(2013).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2), 35-62.
- 권희선, 한기백(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스트레스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 155-183.
- 김경화, 김진숙(2017). **대학신입생의 진로·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및 개발 방안 연구: H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384-396.
- 김미정, 권용준, 김재관(2018).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7(2), 109-129.
- 김미주(201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배, 문승태(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 김민정, 김봉환(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인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1997). **大學生의 進路決定水準과 進路準備行動의 發達 및 二次元的 類型化**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大學院).

- 김영근, 최보금, 박경선(2018).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의 군집분석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
- 김영린, 이기학(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 김은석, 유성경(2013).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97-912.
- 김은정(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 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은진, 강호조, 천성문(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동서정신과학**, 4(1), 147-162.
- 김종운, 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741-766.
- 김지연, 이주연, 이기학(2014).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416-416.
- 김진희, 박미진(2016).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17.
- 김헌수, 장기명, 이난(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78.
- 김효정(2009).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
- 김희진(2001). 유아의 인지. 사회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 난이도, 역할 효율성 및 귀인과정. **대한가정학회지**, 39(10), 83-95.
- 문승태, 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 지역 고등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2), 49-60.
- 문승태, 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205-220.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문승태, 이상래(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성, 계열,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4), 83-95.
- 문정희, 천성문(2020).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3), 253-276.
- 문채욱(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가정의영향에 관한 연구: Erik H. Erikson 의 이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리, 유병민, 심미자(2005).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강의의 기준 탐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3), 41-65.
- 박남숙(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97-215.
-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수영, 이재연(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89-200.
- 박순이, 박영호(2005). 양육환경과 애착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인문논총**, 19, 41-62.
- 박아청, 우채영(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아청, 이승국(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신뢰감과의 관계. **아동교육**, 7(1), 0-12.
- 박아청,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3-142.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40-162.
- 박아청(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완성(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41-143.
-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윤아(2011).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정애, 진미경(2015).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2(1), 101-123.
- 박행모, 문승태,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3), 113-125.
- 배재현(1993). **성격유형, 심리사회적 발달정도와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국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백민정(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분리-개별화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지숙(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서유란, 이상희(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영선, 송현정(2015). 지방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21-42.
-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4), 263-288.
-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서술정체

- 성 의미부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55-76.
- 양진희, 김봉환(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양진희(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은주(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85-107.
-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59-270.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위선희(2013). 부모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2003). 청소년의 진로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훈(2014).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장애수용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훈, 김계현(2015).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6(5), 157-170.
- 유희영, 오윤정(2019).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023-1045.
-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내은(2002).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최명숙, 최성열(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

- 립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739-761.
- 이승구, 이제경(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유진, 전주성(2020).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교원교육**, 36(2), 117-131.
-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응택(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91-112.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梨花女子大學校.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정민, 조보람(2015). 대학생의 창의적인성, 대학지원,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관계 규명. **창의력교육연구**, 15(4), 41-59.
- 이제경, 이승구(2007). 취업 청소년의 진로기대 및 취업준비행동. **진로교육연구**, 20(3), 121-137.
- 이제경, 김계현, 김봉환(1997).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1), 541-552.
- 이종현, 김민재, 성하늘, 유효종(2019). 한국 직장인들의 이직 결정요인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2), 219-245.
- 이진하, 최연식(200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4(4), 75-92.
- 이차선(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백록논총** 2, 109-138.
- 이태영(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태은, 전금주, 김선아, 김보성, 고미나(2018). 부모 및 또래의 애착이 외향성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39-439.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이현진, 강영배(2021).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

- 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7-84.
- 이화림(2001). **부모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후정, 박지연, 조경덕(202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324-335.
- 이희선, 선우현정(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자아정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39-259.
- 이희영(1999). 진로성숙의 예언변인으로서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의 유용성. **한국대학상담학회지**, 10(2), 135-152.
- 임수진(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49-363.
- 임통일(2013). 장애관련요인이 장애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간 구조 분석. **취업진로연구**, 3(1), 1-25.
- 장연주(2007).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 88-106.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01-121.
- 정봉희, 배영문, 이영순(2008).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7(1), 57-74.
- 정소희, 김진숙(2017).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비교. **상담학연구**, 18(3), 253-270.
- 정은균(2008). 고등학교 신입생의 진로유능성 증진을 위한 학교-기반 개입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642-643.
- 정은미(2018). 부모애착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5, 55-67.
- 정은영, 장성숙(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

-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1), 79-96.
- 조경서, 남기원(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 논집**, 15(4), 161-178.
- 조명실, 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성연, 홍지영(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조영아,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 조은주(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원상희(2011). **심리적 독립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에서 몰입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5), 109-134.
- 주은지(2018). **성인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8), 181-201.
- 진현정(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옥현, 김봉환(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최윤경, 김성희(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최인선, 주은지(2016).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4), 69-87.
- 최현영, 서영석(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한세영(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황경옥(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Adams, G. R., & Shea, J. A.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status, locus of control,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1), 81-89.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
- Allison, M. D.,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Belsky, J., & Fearon, R. P. (2002). Early attachment security, subsequent maternal sensitivity, and later child development: Does continuity in development depend upon continuity of caregiving?.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3), 361-387.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1), 162-186.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3) 207-21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
- Holland, J. L., D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
- Kenny, M. E., & Perez, V. (1996).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ghi, F., D'Alessio, M., Pallini, S., & Baiocco, R. (2009).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time perspective in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2), 181-194.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5), 560-569.
- Melges, F. T., & Bowlby, J. (1969). Types of hopelessness in psychopathological proces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6), 690-699.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Christensen, K. J., Evans, C. A., & Carroll, J. S. (2011).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arenting clusters and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730-743.
- Patterson, C. J. (1995). Sexual orientation and human development: An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3.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4(2), 160.
- Reifman, A., Arnett, J. J., & Colwell, M. 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1), 37-48.
- Rice, K. G., & Cummins, P. N. (1996). Late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1), 50-57.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
- Scott, D. J., & Church, A. T. (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667-692.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
- Tang, N. M. (1992). Some psychoanalytic implications of Chinese philosophy and child-rearing practice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7(1), 371-389.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Stat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 부 록

부록 1. 부모 애착 척도 질문지

부록 2. 진로준비행동 척도 질문지

부록 3. 심리적 독립 척도 질문지

부록 4. 자아정체감 척도 질문지

## 1. 부모 애착 척도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한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	부	①	②	③	④	⑤

	다.	모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하기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부	①	②	③	④	⑤
		모	①	②	③	④	⑤

## 2. 진로준비 행동 척도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지원실 또는 고용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	---	---	---	---	---

### 3. 심리적 독립 척도

번호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님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방식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해도 유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해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의견이 가족문제 해결려에 있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 주리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 4. 자아정체감 척도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믿음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12	이 세상일들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감사의 글

상담자로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했던 저에게 대학원 과정은 앞으로의 저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학업보다는 학교생활과 순간의 즐거움을 먼저 쫓았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청소년 일시보호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늦게나마 상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감은 내담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학원 기간은 부족한 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기도 했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고된 마음에 포기하고자 생각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과정을 행복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제 곁에서 저의 선택을 먼저 존중해주시고, 믿어주시며 응원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논문 시작하고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따뜻하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김택호 지도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문지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연구자로서의 태도, 지도 학생들에 대한 격려는 앞으로 상담자로서의 저에게 많은 배움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기 중 많은 가르침과 격려, 논문에 대해 도움을 주신 권해수 교수님, 오지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논문을 진행하며 고생한 승원이, 김가연 선생님, 박진희 선생님, 조해진 선생님 그리고 다른 대학원 동료 선생님들, 먼저 졸업하시고도 많은 도움을 주신 김민주, 정혜향, 김성향, 김경은, 정하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피주시고 챙겨주시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항상 열정적이고 늘 직원을 먼저 생각해주신 차은선 센터장님, 노경화 부장님, 그리고 같은 팀으로 함께한 든든한 위기지원팀 식구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선대 원스톱학생상담센터에서 함께 일하며 항상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시며 배려해주신 심현진 선생님, 이종표 선생님, 박정은 연구원님, 박정은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최유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함께하지 못해도 먼저 연락해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던 목포 친구들 효준이, 재진이, 진수, 다일이 찬일이, 찬선이, 형준이, 준이, 강윤이, 성

민이, 정민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도와주고 늘 못만나고 빠져도 싫은 소리한번 안한 광주 형, 동생, 친구들, 홍민이형, 건태형, 현모형, 현우, 성준이, 유진이, 소민이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돼주고,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준 아영이.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자신 본인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신 할머니. 늘 저만 기다리며, 혹여 손자에게 방해될까 전화도 조심스러우셨던 할머니.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먼저 좋은 곳으로 가게신 할머니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해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다 적지 못했으나, 너무나 감사할 분이 더 많습니다. 다 감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분에 넘치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신 고마운 분들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은 만큼,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노 지 석